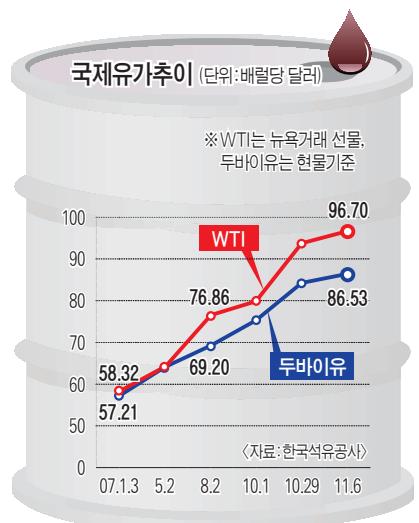


중동 불안에 원유 재고 줄고 ... 추운 날씨 겹쳐 수요 계속 늘고...



유가 100달러 코앞

WTI 배럴당 96.70달러
또 사상 최고치 경신
글로벌 경제 요동

상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장중에 배럴 당 93.56달러까지 급등, 지난 1988년 거래 시작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는 아프가니스탄의 폭탄공격과 예멘 내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 소식이 중동 불안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를 고조시킨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와 겨울철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국제 원유수요가 예전 전망치보다 하루 4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겨울철 수급사정이 빠듯할 것이라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는 맥

시코의 원유생산 차질로 인해 170만배럴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고조시켰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루 440만배럴의 생산량을 가진 북해의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달러화 가치 하락도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면 서 이에 따라 배럴 당 100달러 돌파 시도가 멀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화의 가치는 미국의 연방금리가 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이날 유럽 외환시장에서 유로 당 1.4571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유로 당 1.45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는 물론 인플레이를 감안한 역대 최고가격인 배럴 당 101.70달러에 근접하는 급등세를 보이에도 불구하고 강세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익실현에 대한 욕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의 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고감소와 추운 날씨가 겹치면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컨설팅업체인 퍼빈 앤드 커츠의 애널리스트인 빅터 슌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국제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상업거래소의 12월 인도분 금값도 달러화 가치 하락과 국제유가의 급등세의 영향을 받아 전날에 비해 12.60달러 오른 온스 당 823.40달러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온스 당 828달러까지 올라 지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하우젠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 출시
삼성전자가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맞춤형공조가 가능한 고(高)효율 하우젠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을 7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디지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 기존 10마력 모델보다 에너지 효율을 20%가량 향상시켰다. <삼성전자주식 제공>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한다

금감원 내년부터 설명제 단계적 도입

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과정과 지급내역을 손쉽게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시금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한다. 모든 보험약관은 해당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의 모든 보험 계약을 찾아서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호산업·두산건설·삼화왕관

공정위, 출중제 위반 경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자분의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3개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2002년 9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출중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대해 이행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이중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대상중 그동안 법원청산이나 주식처분 등으로 사유가 없어진 곳이 많아 실제로는 9개 집단의 29개 출자회사와 이들의 140개 피출자회사가 점검을 받았다. 조사결과 금호산업은 동양오리문투자증권의 주주총회와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각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두산건설도 두산베어스 주총에 2회, 이자빌 주총에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화왕관도 하나증권 주총에 3차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온열기·반신욕조기·전기찜질기...

의료기기군서 대거 퇴출

효도상품이란 이름으로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던 제품들이 의료기기군에서 대거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품목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안고쳤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신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천13개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기를 2천4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사용목적에 구체화하며 품목별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육통증완화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매트식 온열기, 마사지기, 전기찜질기, 전기스팀 사우나기, 반신욕조기, 발욕조기(족욕기), 안면사우나기 등 7개 품목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中企·가계대출 동반 급증

10월 한달 부가세 납부·이사철·결혼시즌 맞물려

중기- 8조2,499억·가계- 3조9,142억 최고 수준

10월중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기대출은 8조원 이상 늘어나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가계대출 증가폭도 올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또 미래에셋증권 전담사채(CB) 청약에 7조원이 넘는 돈이 몰리면서 수시입찰식예금을 중심으로 은행 전체 수신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이 3조5천914억2천원을 기록해 전년(9천424억2천)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들어 최고 수준이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7천762억원, 7월 1조7천697억원에 이어 8월 3조3천87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9월에는 9천억원대로 주저앉았다.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가을 이사철 및 결혼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달 3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추석연휴에 사용한 카드대금의 결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전달 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지난 달 8조

■기업 자금조달 및 가계대출

| 구분 | 중기대출 | 가계대출 |
|-----|--------|--------|
| 1월 | 27,922 | -2,109 |
| 2월 | 47,183 | 18,812 |
| 3월 | 67,412 | 7,339 |
| 4월 | 79,082 | 13,780 |
| 5월 | 71,459 | 1,804 |
| 6월 | 81,115 | 7,762 |
| 7월 | 31,399 | 17,697 |
| 8월 | 39,465 | 33,873 |
| 9월 | 77,908 | 9,424 |
| 10월 | 82,499 | 39,142 |

2천499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은행의 중기대출은 지난 6월 8조1천115억원이 증가한 이후 7월 3조1천399억원, 8월 3조5천914억2천원으로 둔화했으나 9월 7조7천908억원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100,000 원·50,000 원권 발행때 OECD국 중 최고 액권중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재점화

고액권 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화폐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최고 액면권종을 보유하게 된다. 통화화폐 가운데 영이 4개나 들어가는 권종을 보유한 국가도 극소수인

가운데 영이 무려 5개나 들어가는 10만원권 지폐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에 찬성하는 진영은 이러한 점 뿐만 아니라 금융통계의 단위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도 리디노미네이션을 서둘러야 하는 요소로 꼽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금융자산 총액은 7천573조4천4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는 15.7% 늘었다.

이러한 증가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고액권이 발행되는 2009년 6월에는 1경(京)원을 돌파할 수 있다. 1경은 1조(兆)의 1만배에 해당하는 단위로 장부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영이 무려 16개나 필요하다. 이런 점 등이 화폐 단위변경 주장의 이유다. 그러나 한은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은 '당분간 계획없음'이라는 쪽이다. 이상태 한은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화폐단위 변경은 장래의 어떤 시기에 거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한경쟁 시대' 직장인 5명 중 1명 꼴

"1대1 과외 학습 받는다"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지식포털 비즈몬과 함께 직장인 1천90명을 대상으로 과외학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9.2%가 '현재 자기계발을 위해 1대1 과외학습을 받고있다'고 말했다고 7일 밝혔다. 1대1 과외를 받고있다는 답변은 남성(22.2%)이 여성(14.5%)보다 많았다. 직장인들은 주로 영어회화(52.1%)를 위해 과외학습을 하고있었다.

다. 토익 등 외국어 학습(18.2%)이나 경력관리 컨설팅(17.7%) 때문에 과외를 받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잡코리아 김희수 사장은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는 직장인이 늘고있는 가운데 시간제 약임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기 위해 1대1 과외를 택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포.스.코

사회책임기업 국내 1위

포스코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워크 일본판이 선정한 세계 사회책임(CSR) 기업순위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올랐다. 뉴스워크 한국판은 7일 뉴스워크 일본판이 최근 영국의 CSR 컨설팅 회사인 EIRIS와 스탠더드&푸어사의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포스코가 세계 30위에

올라 국내 최고 기업으로 뽑혔다고 보도했다. 다른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141위, 삼성SDI가 213위에 올랐다. 뉴스워크 일본판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과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업의 사회적활동이 서로 상충되기 쉽지만 이를 조화롭게 선순환시키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매년 상위 500대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전제가 되는 재무성과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3개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해 최종 집계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업 체 명 | 모 집 분 야 | 자격 및 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 광주/부산삼성생명콜센터 상담직(인바운드)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1/09 | 062-600-0802 |
| 엔티시 | 기계설계 및 제작 인원 | 고졸/경력3년 | 2000~2200 | 11/09 | 062-972-1241 |
| 현우서비스 | 전남 영암 무대예술 전문인(무대감독, 음향 감독) | 대졸/경력10년 | 회사내규 | 11/10 | 02-514-7310 |
| 알뜰몸뚱이 | 피부관리사, 경락관리사, 뷰티메니저, 비만관리사 | 고졸/경력1년 | 2200~2400 | 11/10 | 062-674-0202 |
| AIG생명(본사) | [직영공채] (남)어객상담원-월령군300만이상-중식제공 | 고졸/경력무관 | 2800~3000 | 11/13 | 02-3452-2612 |
| 웅진씽크빅 | 광주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 캠프터 강사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1/13 | 062-515-0195 |
| 여수수산유통 | 식자재 납품 배송기사 및 작업자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11/13 | 062-262-7623 |
| 파이낸셜인슈어 | 2007년 전문 재무설계사 | 대졸/경력2년 | 회사내규 | 11/13 | 062-226-2200 |
| 현대코리안 | 정규직 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11/14 | 062-956-6852 |
| 랑커뮤니케이션 | 웹디자인/컨텐츠개발 및 발송 관리 | 초대졸/경력3년 | 회사내규 | 11/14 | 062-385-1221 |
| 신일가스 | 전산입력, 사무보조, 문서관리, 문서작성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11/15 | 062-951-0011 |
| 매지서비스 | 동양매직 서비스 출동 협력직원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11/15 | 062-524-3131 |
| ctpia호남지사 | 편집디자인(IMAC) 실사출력기사 | 고졸/경력2년 | 1400~1600 | 11/16 | 062-453-5000 |
| 고려오토론 | 품질관리 담당자 | 초대졸/경력무관 | 1000~1200 | 11/16 | 062-973-7771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